2007 전망과 트렌드

② 내 젊음 내가 지킨다

제2의 청춘 즐기는 '실버 파워'

76세 할아버지 '컴퓨터 삼매경'
66세 할머니 스포츠댄스 만끽
성형수술 등 자신위한 투자도

올해 일흔여섯 살의 김동식(광주시 북구 두암동) 할아버지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는다.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컴퓨터에 기록한다.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 10월. 문득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손자 재현(11)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온통 모르는 말투성이었다.

두 달 뒤, 광주시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무료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다. 정원 26명에 6명이 65세 이상이었다.

"마우스 오른쪽? 왼쪽 클릭? 더블 클릭(double click)하라는데, 4~5번이 한꺼번에 눌러지고. 주위에서 다 늙어서 컴퓨터는 배워서 뭐하느냐는 말도 많이 들었지."

하지만 오기가 생겼다. 하루에 2시간씩, 10일 동안 짧은 강의였지만, 할아버지의 노트엔 무언가 빼곡히 적혀있다. 정해년(丁亥年) 첫날인 지난 1일에는 일본 도쿄에 사는 지인(시로시케 다카시·68)에게 e메일을 보냈다.

"올해는 손자들, 친구들하고 함께 인터넷으로 더 자주 대화를 나눴으면 해. 몸이 더 불편해지면 못할 테니까."

박순의(여·66·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는 매주 두 번 스포츠댄스 강습을 받는다. 3년 전부터는 일주일에 세 번씩 요가도 새로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한 이후, 잔병치레가 없어졌다. 감기도 슬쩍 비켜갔다.

"청춘이죠. 젊은 사람들과 함께 파트너가 돼 땀을 흘리면, 몇십 년은 젊어진 느낌이 든다니깐요."

'인생의 계획은 90까지 세워라.' 젊고 화려했던 옛 시절을 꿈꾸며, 노인들이 다시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광주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만2천407명으로, 전체인구(140만3천278명)에서 7.3%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수는 ▲2004년 9만4천606명(6.7%) ▲2005년 9만9천389명(7.1%)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 ▲2004년 29만5천568명(14.9%) ▲2005년 30만6천439명(15.6%) ▲2006년(11월 말 현재) 31만6천306명(16.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한 신체. 젊은 외모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광주 벨라 성형외과의 경우 일주일에 2~3명씩 60대 이상 노인들이 주름제거·눈 처짐 수술 등을 받고 있다. '이마 당김 수술'처럼 2~3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술을 받는 노인도 있다. 문의전화도 하루 평균 2~3통씩 걸려온다.

벨라 성형외과 조규성(37) 원장은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고, 여가 활동도 늘면서 과거에는 신경을 안 썼던 잔주름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면서 "노인들이 보다 젊게 보이고 싶은 욕망에 요즘엔 50만~100만원이 넘는 돈도 자신을 위해 기꺼이 투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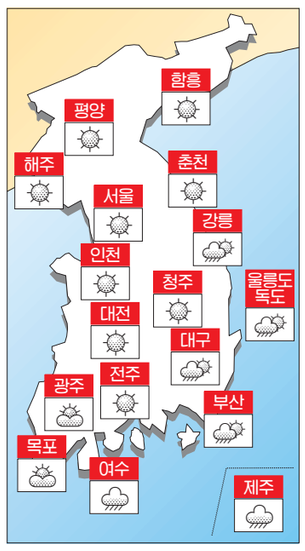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희뿌연 출근길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

1월 3일 (음 11월 15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많음	1~10℃
목 포	구름많음	1~8℃
여 수	구름많고 비	5~9℃
완 도	구름많고 비	3~9℃
구 례	구름많음	-2~10℃
해 남	구름많고 비	1~9℃
장 흥	구름많고 비	1~9℃
고 흥	구름많고 비	2~10℃
순 천	구름많음	-2~10℃
영 광	구름많음	0~9℃
진 도	구름많고 비	1~9℃
전 주	구름조금	1~10℃
남 원	구름조금	-2~9℃
정 읍	구름조금	0~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목 포 밀물 01:17 14:19 썰물 06:50 19:42
여 수 밀물 09:12 21:09 썰물 02:32 15:19

▲해뜸 07:41 ▲해짐 17:32 ▲달뜸 16:58 ▲달짐 07:3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날 씨						
최저/최고	1/10	2/5	-1/2	-4/1	-6/2	-6/2

논술·면접고사 본격 시작

남부대·동신대 등 오늘부터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의 마지막 관문인 대학별 논술·면접고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논술고사의 경우 광주·전남에서는 남부대가 3일부터, 영산선학대는 23일 각각 실시한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도 3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4일 가톨릭대, 6일 연세대·한양대·경희대, 9일 성균관대, 11일 고려대·숙명여대, 12일 서강대, 13일 중앙대, 16일 서울대·한국외대, 23일 건국대가 각각 실시한다.

논술고사는 주로 인문계열에서 실시하며 반영비율이 그리 높진 않지만 수능시험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고 학생부 변별력 또한 낮기 때문에 대입 전형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면접고사는 광주·전남 대학의 경우 3일 동신대를 시작으로 4일 광신대·광주여대·조선대, 9일 광주교대·한려대, 15일 전남대 등에서 실시한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도 4일 가톨릭대, 5일 성균관대·이화여대, 6일 연세대, 11일 고려대, 17~18일 서울대 등 각 대학별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앞 도로. 사정거리 1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깔려 출근길 차량들이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짙은 안개 '운전 조심'

어제 광주공항 항공기 잇단 결항

2일 새벽 광주 곳곳이 짙은 안개로 뒤덮였다. 안개는 오전 10시까지도 걷히지 않아 출근길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전날에 이어 3일에도 광주·전남 곳곳에 이른 아침 가시거리(可視距離) 1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했다.

◇안개 왜?=안개는 매우 작은 물방울이 대기 중에 떠 있는 현상으로, 관측지점으로부터 1천m 이내의 목표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말한다.

이번 안개는 전날 밤새 내린 비가 원인이 됐다. 정해년(丁亥年)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광주에는 2㎜의 비가 내렸다. 비가 온 뒤라 노면이 습도가 높아졌고, 새벽 기온이 다소 떨어지자 뿌연 안개가 발생했다. 새벽에 잠깐 나타났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복사안개'(輻射霧)인 것이다.

기상청은 "3일 오후부터는 다소 건조해지고, 북동쪽에서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4일 새벽에는 안개는 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안 지방에는 3일 오전 한때 5㎜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안개 영향=갑작스런 안개로 광주 공항에서는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다. 대한항공은 2일 오전 7시30분 서울을 출발, 오전 8시20분 광주로 도착할 예정이었던 KE1301편을 비롯, 총 6편이 취소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광주~김포 구간 OZ8702편 등 2편이 결항됐고, 광주~제주 간 2편은 1~3시간 지연됐다. 항공기는 안개가 다소 걷힌 이날 정오께 정상 운행됐다.

광주 공항의 경우 ▲가시거리 800m ▲운고(雲高·구름 밑 부분의 고도)가 60.60m를 넘어야 이·착륙을 할 수 있다. 활주로 양쪽 끝·중간 등에 설치한 '아모스'(AMOS)로 이를 측정한다. 이 장비는 구름 높이·온도·풍향·풍속·활주로 가시거리 등을 측정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 찬 진실 공방 이민영

파경의 원인을 놓고 팽팽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이찬-이민영 커플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이찬은 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미원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영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절인지에 대한 문제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강동성심병원에 입원 중인 이민영은 이날 오전 자신의 병실을 공개했다. 이민영은 "이찬의 폭행으로 유산됐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구랍 30일 코뼈 접합수술을 받은 이민영은 코에

이 찬 "발로 차 유산시킨 적 없다"
이민영 "결혼전부터 상습폭행 당해"

그는 "뺨을 7~8차례 때린 건 사실이다. 다 감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바란 아이를 발로 차서 유산했다는 말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찬은 "결혼 전부터 양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다름 아닌 집 문제와 '사랑과 야망'이 끝난 후에 나온 광고 문제였다"고 했다. 그는 또 "제 나이에 49평 3억 5천만원 전세가 적다고 하면 드릴 말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가 유산인지 임신중 보호대를 하고 있었으며 눈 부위에는 붉은 멍자국이 있었다.

이민영은 "수십 차례 머리와 얼굴을 구타당했으며 그는 내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로 운전했다. 나를 발로 차서 차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말했다.

또 "결혼 전에도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며 "매번 집으로 찾아와 몇 시간이고 사죄했다. (이찬이) 다시 한번 그러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맹세했기에 결혼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며느리·올케 등 여성 비하적 호칭 바꾸자"

민우회, 캠페인 나서

가족 사이에서 서로를 지칭하는 용어의 상당수가 여성 비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평등한 호칭으로 바꾸자는 운동이 진행 중이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http://hoho.womenlink.or.kr)을 통해 벌이고 있는 '호락호락' 캠페인이 그것.

민우회에 따르면 '며느리'는 기생(奇生)한다는 뜻의 '며늘'과 '아이'가 합쳐진 말로 '내 아들에 딸려 더부살이로 기생하는 존재'라는 의미다.

'올케'는 '오라비의 겨집'(계집의 옛말)에서 유래한 호칭으로 여필종부의 문화를 반영한다. '아가씨'와 '도련님' 역시 종이 상전을 높여 부르던 호칭이라는 게 민우회 측 설명이다. /연합뉴스